



지성
창조
봉사

한라초추

T H E H A L L A T I M E S

발행인:김성훈 주간:정무상 편집장:김소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전화: (064) 741-7552

2021년 03월 29일 제218호

편안하게 순항할 수도,
나쁜 기류를 만나 흔들릴 수도,
도착지 공항 사정으로 뱅뱅 돌며 비행시간이 길어질 수도,
하지만 내 인생의 도착 지점은 그 어떤 여행지보다도 아름답고 빛날 것이다.



제주 한라대학교를 소개합니다.

‘국제화를 향한 미래비전을 실현하는 대학교!’ 제주한라대학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각 행정부서와 우리 학교의 이념을 알아보자.

1969년 설립한 제주한라대학은 올해 2021년 기준으로 5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첫 시작은 제주도 공립 제주 간호학교였으며, 이후 1982년 학교법인 한라학원 설립과 함께 학교를 현재 주소인 ‘한라대학교 38’로 이전하였다. 마지막으로 1998년, ‘제주한라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며 현재까지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다.

제주한라대학은 訓誨報國(훈회보국), ‘가르치고 일깨워 나라의 은혜에 보답’ 하고 仁術廣施(인술광시), ‘인류의 발전과 복지를 향한 기술적 공헌을 하는 것’을 건학 이념으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우리 대학교 건학 이념에 따라 사회와 국가 발전에 필요한 수준 높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교육 · 연구 · 봉사한다. 또한 지역 사회와 국가가 요구하는 실력과 인격을 겸비한 창조적 지식 전문 직업인 육성을 위해 질적으로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지식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별화 교육인 PBL 현장실무 교육 프로그램과 4년제 학사학위 과정 실시하여 취업과 창업에 강한 학우를 배출해낸다. PBL(문제 중심학습법) 적용은 분석적이며 창의적인 사고 활동을 개발하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새로운 개념의 학생 중심 교육 방법이다. PBL과 더불어 자격인증제 실시, 책임지도 교수제 시행, 정보화 · 세계화 교육 강화 등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동북아시아 직업교육 중심대학」이라는 대학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3대 발전전략과 연계한 자체평가를 시행한다. 이는 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 강화, 자체평가를 통한 대학의 발전계획 수립,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더불어 대학의 설립목적, 발전계획, 특성화 전략에 기반을 둔 자기 진단과 점검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품질을 향상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 대학 자체평가는 학교 홈페이지 학교 소개의 대학소개 안에 있으며 누구든, 언제든지 결과보고서를 접할 수 있다.

제주한라대학 내에는 여러 가지의 행정부서가 있다.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기본적 계획을 입안하는 기획처, 효율적인 학사관리와 교육행정의 능률화를 하는 교무처,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하고 대학 문화 분위기를 고양하는 학생복지처 등이 있다. 이외에도 사무처, 산학협력처, 국제교류처, 입학홍보처 등이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 학교 소개의 행정부서 안에 자세한 운영목표와 운영방침이 적혀 있다. 만약 학교에 문의 혹은 확인할 것이 있다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각 행정부서의 운영방침 확인 후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다.

* 주소 : (63092)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교 38 * TEL. : 064-741-7575 * FAX. : 064-747-3989

제주한라대학은 동북아시아 직업교육 중심대학교로서의 사회적 사명을 갖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역사를 알고 우리의 모교에 자부심을 느끼고 경쟁력 있는 지식 정보화 교육을 통해 취업과 창업에 강한 학우들로 거듭나길 바란다.

<김소현 편집국장>

한눈에 알아보는 제주한라대학교 캠퍼스

도내 첫 코로나 확진이 터진 지 1년이 지난 지금 제주한라대학교는 올해 작년과는 다르게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내기들과 작년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교를 방문할 일이 적었던 20학번 학생들을 위해 캠퍼스 소개를 하고자 한다.



▲ 제주한라대학교 캠퍼스 안내도

금호관(3)

1층	입학홍보처, 교무처, 서무팀, 행정지원팀, 학생복지처, 학생상담센터, 예비군중대, 교육육역량혁신센터, 교환실
2층	산학협력단/산학협력처, 정보전산원
3층	기획처, 부속실, 이사장실, 총장실, 경리부

금호미래관(9)

1~6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저스포츠과, 언어교육센터, 사회복지학부/학과, 복지행정과, 보건행정과, 의료복지교육연구원, 사회복지과, 장애학생지원센터, 뷰티아트과, 한라 · 스토니브룩 응급의료교육원이 자리 잡고 있다.

금호세계교육관(16)

A동	한라컨벤션센터, 카페38, 더커먼스, 국제교류처, LINC+사업단,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단, 글로벌산학협력센터, 국제관광호텔학부, 수놓음마을행복센터사업단, 호텔조리과, 호텔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 푸드아트센터, 제주향토식품연구소, 미래문화기술연구단
B동	관광영어과, 관광일본어과, 국제경영학과, 관광경영과, 관광중국어과, 공자학원

인(4) · 의(5) · 예(6) · 지(7) · 신(8) 관

어질고, 의롭고, 예의 있고, 지혜로우며,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오상이라 불리는 인의예지신은 사람이 언제나 몸에 갖추어야 할 5가지 대사이다. 제주한라대학교는 우리 대학 학생이 지역 사회와 국가가 요구하는 실력만을 갖추는 것이 아닌 인격까지 겸비한 직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인의예지신을 건물 이름으로 사용한 것은 교육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투영한 것이다.

인관	평생교육원
의관	간호학부, 간호학과, 한라뉴캐슬PBL교육연구원, 보건실
예관	취창업지원센터, 물리치료과, 응급구조과, 도서관
지관	A동 임상병리과
	B동 보건학부, 작업치료과, 방사선과
	C동 마사학부, 마산업자원학과, 마사학과
신관	정보기술/건축학부, 컴퓨터정보과,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컴퓨터멀티미디어과, 지능형시스템공학과

한라아트홀(10)

제주한라아트홀은 각종 문화 예술 공연을 펼칠 수 있는 대형 공연장 및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연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학과/기관
음악과, 교육방송국,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신문사

한라학사(11)

도내 대학교 중 최대의 시설을 갖춘 기숙사로 2인실, 4인실이 있다. 각 실마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냉난방 시설이 완벽히 갖추어져 있다. 기숙사에는 휴게실, 공동취사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추고 있다.

도서관(6, 4층)

제주한라대학교 도서관은 수많은 열람실, 장서, 제주향토자료, 국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국내외 전자책 등을 소장한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여 교직원 및 학생, 동문,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주 도내 대학도서관과 협력 및 협약을 체결하여 문헌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강서경 대학부장>

2021년, ‘신념’을 가지고 ‘가치’를 중요시 하는 우리.



원래 학사일정이라면 3월 말까지에 발대식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19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학생 자치기구는 발대식 일정을 취소하였다. 이에 발대식에서 진행하여야 하는 제주한라대학 학우들에게 전하는 각 자치기구 장들의 당찬 포부를 보자.



▲ 신념 총학생회
정공진 총학생회장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제주 한라대학교 제37대 신념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정공진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한 학기가 시작하는 첫 주의 금요일입니다. 월요일 3.1절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신념총학생회 임원진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에 나와 학생들께서 학교를 얼마나 찾아오는지 혹은 불편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고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분들에게 첫 번째 행사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지금도 회의하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념총학생회는 신념이라는 단어를 풀이하자면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학생분들에게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되어 서로 믿음과 신뢰로 응원하며 더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더 노력하고 말로만 보고 듣는 게 아닌 행동으로 옮겨 보여줄 수 있는 신념총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항상 저희에게 말씀해주세요! 저희 신념총학생회는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정말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주 한라대학교 제37대 가치 총대의원회 의장 김선애입니다. 유난히 길고 힘들었던 한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됨으로써 학생자치기구의 임기도 시작되었습니다.

총대의원회는 학우분들의 학생회비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사하는 감사위원회, 졸업하시는 학우분들을 위해 졸업사진 촬영을 도와드리는 졸업 준비 위원회, 학생자치기구 선거의 제반을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한라 학우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대학 생활을 위해 총대의원회가 같이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치 총대의원회를 포함하여 신념 총학생회, 한라 춘추 신문사, CHEBS 교육방송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가치 총대의원회
김선애 의장



▲ CHEBS 교육방송국
양영은 실무국장

올해를 시작하며 이렇게 교내신문으로 학우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기도 아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CHEBS 교육방송국은 올해도 어김없이 알찬 내용 · 진실된 소리 · 노력하는 방송인이라는 국훈 아래 다양한 방송과 활동으로 학우 여러분들의 정서 함양과 면학 분위기 조성에 기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내 · 외 여러 중요 사항을 신속하고 진실하게 학우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방송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한라 학우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CHEBS 교육방송국이 되기 위하여 그에 맞는 방송과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방송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저희 CHEBS 교육방송국 잘 지켜봐 주시고 올 한해도 한라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한라대학교 제36대 한라 춘추 신문사 편집장 김소현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1년이 벌써 지나가고 2021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문사는 월 1회 발행되는 대학신문 ‘한라 춘추’를 통하여 우리 대학교 교내소식과 공지사항, 학생 여론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함으로써 균형 있는 여론 형성과 건전한 대학문화 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라 춘추’를 통하여 학우분들에게 학교의 행사, 공모전, 혜택 등을 신속하게 전달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 속에서 바르고 진실된 사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윤리적 책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학우분들의 목소리와 행동에 귀를 기울여 신문에 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라 춘추’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더욱 발전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라춘추 신문사
김소현 편집국장

신념 총학생회, 가치 총대의원회, CHEBS 교육방송국, 한라 춘추 신문사는 제주 한라대학교 학우 여러분의 편에 서서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앞으로 1년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현 편집국장>

이런 것도 있어?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꿀 혜택



실시간 인기 상품

Apple iPad Air 10.9형
M1/M2/M3/M4/M5/M6/M7/M8/M9/M10/M11/M12/M13/M14/M15/M16/M17/M18/M19/M20/M21/M22/M23/M24/M25/M26/M27/M28/M29/M30/M31/M32/M33/M34/M35/M36/M37/M38/M39/M40/M41/M42/M43/M44/M45/M46/M47/M48/M49/M50/M51/M52/M53/M54/M55/M56/M57/M58/M59/M60/M61/M62/M63/M64/M65/M66/M67/M68/M69/M70/M71/M72/M73/M74/M75/M76/M77/M78/M79/M80/M81/M82/M83/M84/M85/M86/M87/M88/M89/M90/M91/M92/M93/M94/M95/M96/M97/M98/M99/M100

Apple MacBook Pro 13형
M1/M2/M3/M4/M5/M6/M7/M8/M9/M10/M11/M12/M13/M14/M15/M16/M17/M18/M19/M20/M21/M22/M23/M24/M25/M26/M27/M28/M29/M30/M31/M32/M33/M34/M35/M36/M37/M38/M39/M40/M41/M42/M43/M44/M45/M46/M47/M48/M49/M50/M51/M52/M53/M54/M55/M56/M57/M58/M59/M60/M61/M62/M63/M64/M65/M66/M67/M68/M69/M70/M71/M72/M73/M74/M75/M76/M77/M78/M79/M80/M81/M82/M83/M84/M85/M86/M87/M88/M89/M90/M91/M92/M93/M94/M95/M96/M97/M98/M99/M100

삼성 갤럭시 북 Ion2
M1/M2/M3/M4/M5/M6/M7/M8/M9/M10/M11/M12/M13/M14/M15/M16/M17/M18/M19/M20/M21/M22/M23/M24/M25/M26/M27/M28/M29/M30/M31/M32/M33/M34/M35/M36/M37/M38/M39/M40/M41/M42/M43/M44/M45/M46/M47/M48/M49/M50/M51/M52/M53/M54/M55/M56/M57/M58/M59/M60/M61/M62/M63/M64/M65/M66/M67/M68/M69/M70/M71/M72/M73/M74/M75/M76/M77/M78/M79/M80/M81/M82/M83/M84/M85/M86/M87/M88/M89/M90/M91/M92/M93/M94/M95/M96/M97/M98/M99/M100

▲ 학생복지스토어

착하지 않은 가격으로 전자기기 구매를 망설이는 학생들은 여기로!

개강 후 대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필수템이 무엇이나고 물어본다면 노트북이라고 할 수 있다. 비싼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은 여기를 주목하라. 학생복지스토어에서는 대학생들을 위해 최대 30%까지 상품을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다. 학생복지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상품에는 노트북, 데스크탑, 태블릿 pc, 그래픽 태블릿, 영상가전 등의 전자기기와 그에 따른 디지털 액세서리,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가격 확인과 구매를 위해서는 대학생 인증이 필수이다. 에브리타임 회원이라면 로그인만으로 빠르고 쉽게 인증이 가능하며, 회원이 아니거나 에브리타임 인증이 되지 않을 시에는 학교와 학번, 인증자료를 직접 첨부하여 인증을 요청하면 된다. 학생복지스토어에서는 다양한 유명 브랜드의 인기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으며, 각 제조업체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공식 리셀러를 통해 100% 정품만을 판매하고 있다. 아직 필수품을 구비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학생복지스토어를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MS 오피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단지 노트북을 구매했다고 해서 바로 과제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제를 하기 위해 MS 오피스를 다운받아야 하는데 이마저 돈이 들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실망도 잠시 좋은 소식이 있다. MS에서 학교 전자 메일 주소 인증만 하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MS 오피스를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학교를 재학하는 동안 계속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꿀 혜택을 놓치지 말자.

신뢰있는 자료 100배 활용하기

리포트나 피피티 작성을 하다 보면 충분한 자료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료를 찾을 때는 단순 인터넷 검색보다 신뢰도가 있는 논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학교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배너를 통해 논문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논문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학교 아이디를 입력해도 자료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니 논문을 활용해야 한다면 이 방법을 이용해보자.

#대학생활인 #대학생활꿀팁 #모르면 손해

<강서경 대학부장>

코로나19 백신, 제대로 알고 있나요? 코로나 백신 연내 순차적 공급시작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가 되어버린 마스크, 이제 작별할 때가 온 것일까? 현재 정부는 2월 14일부로 지금까지 총 7,900만 명분 백신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26일부터 요양병원 등의 고령층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1차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유통이 급속화 되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백신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국내에서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 2종(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안센 코로나19 백신), mRNA 백신 2종(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재조합 백신 1종(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COVAX-화이자 코로나19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허가됐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은 보관온도가 90℃~-60℃로 초저온냉동고가 갖춰져 있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하게 된다. 또한, 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2℃~8℃에서 냉장보관이 가능하며 4주~12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지만, 접종 간격이 넓을수록 예방 효과 및 면역반응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8주~12주로 접종을 권고한다.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국소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특이적 조치 없이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진다.

예방접종 후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

예방접종 후에 아래와 같은 증상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 2~3일내 저절로 좋아집니다.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적

발열, 메스꺼움, 근육통

피로감

두통

접종에도 우선순위가 존재하나요?

코로나19백신 대상자의 경우 1, 2, 3, 4분기로 나뉘어 있다. 현재 1분기(2~3월)에서는 코로나19 의료진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해 수도권 소재의 의료기관 의료진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65세 미만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문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보건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119 구급대, 역학조사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18~49세의 건강한 성인의 경우 3분기(7~9월)경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며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를 끝으로 4분기(10~12월)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상군별 자세한 접종 시기는 질병관리청 사이트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이상반응이 나타날 시 대처법

경미한 통증의 경우 수건으로 냉찜질을 하거나 미열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등의 방법으로 불편한 증상을 완화해 나가는 것이 좋다. 전신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 완화를 위하여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방접종 후, 이런 증상이 생기면



접종부위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세요.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쉬세요.



전신 통증이 있는 경우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기관에 방문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백신이 주는 삶은 드디어 이 생활을 끝낼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지만 이는 또 다른 제3차, 4차 코로나 대확산을 불러일으킨다고 누군가는 말한다. 그 선택은 우리의 행동에 달렸다. 어쩌면 희망, 어쩌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며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해보자.

<오은아 지도부장>

주린이를 위한 주식의 A to Z 2021년 최고의 제테크, 주식

주식과 어린이를 합친 일명 '주린이'는 주식에 갓 입문해 주식의 경험이 적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주식을 시작하고 싶지만 찾아보긴 귀찮고, 막상 시작하자니 겁이 나는 주린이들은 이 기사에 집중해보자.

코로나 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사람이 주식 시장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가족부터 주변 친구들까지 하나둘씩 주식에 뛰어드는 것을 보며 "앗 나도 주식을 한 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제테크에 눈을 뜨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불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주식에서는 일상에서 '사다', '팔다'와 같이 쉽게 쓰이는 단어가 매수, 매도와 같이 쓰이는 것처럼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을 사용한다. 주식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용어와 주식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주식용어 정리

- ▶ 개미 : 개인투자자를 칭하는 은어
- ▶ 매수/매도 : 주식을 사는 것/주식을 파는 것
- ▶ 상한가/하한가 :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최댓값/내릴 수 있는 최솟값
- ▶ 시가/종가 : 주식거래 가장 최초로 결정된 가격(시작하는 가격)/주식 시장이 마감될 때 마지막으로 결정된 가격
- ▶ 호가 : 갖고 있는 종목 매도 시 판매할 가격 또는 구매할 가격을 미리 걸어두는 것
- ▶ 손절매 : 상승할 가능성이 없어 떨어질 것 같은 주식을 매수가 아래로 매도하는 것
- ▶ 익절 : 매수한 금액보다 더 높게 매도하는 것
- ▶ 턴라운드 : 주가가 급등하여 높은 수익을 내는 것
- ▶ 스캘핑 : 수십, 수백 번의 초 단위로 거래하며 단기 차익

단계별 주식투자방법

- ① 마음에 드는 증권사 어플을 깔아 계좌를 개설한다.
 - ② 섹터(친환경 에너지, 항공 우주 등과 같은 산업 분야)를 정한다.
 - ③ 내가 고른 섹터에 있는 관련 기업 중 관심이 가는 기업에 호가를 넣는다.
 - ④ 주가가 하락/상승할 가능성을 두고 목표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한다.
- 주식 시장에서 빨간색은 자신이 투자한 종목의 주식이 상승했다는 뜻이고 파란색은 반대로 하락했다는 뜻이다. 해당 주식이 계속 빨간색이라면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고, 계속 파란색이라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 대부분의 주린이들은 자신이 매수한 주식이 파란색으로 바뀌면 투자에 실패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 손절매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은 결국 우상향 그래프를 그린다. 한마디로 주가는 오르게 돼 있다는 뜻이다. 주식은 오르면 다시 떨어지고, 내리면 다시 오르게 되어있다. 하지만 상향폭과 우향폭을 아무도 100%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 430 +14.98%

▼ 2,250 -14.80%

▲ 53,000 +3.73%

▼ 22,500 -7.51%

▲ 2,800 +3.75%

▲ 주식 종목표

부자가 되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누군가 떠다 주는 물을 볼 게 아니라 스스로 나침반을 가지고 찾아 나서야 한다. 누군가에게 들은 잘못된 정보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도록 하자.

<조수빈 홍보부장>

학교폭력, Me too!
나는 네가 과거에 한 학폭을 알고 있다.

스포츠나 연예계 등 유명인의 과거 학교폭력이 피해자들로부터 잇따라 폭로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게 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목된 사람이 가해 당사자가 맞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고 가해자는 사회적 매장을 당해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면서 폭력이 되풀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 미투의 시작

미투 캠페인이란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밝히며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과거 성폭행이나 성희롱에 대해 여론의 힘을 빌려 사회적 고발을 하는 미투 운동이 활발했던 적이 있다. 최근에는 과거 학창 시절의 자신이 겪은 학교폭력 피해를 밝히는 학교 폭력 미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 미투는 어디서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걸까?

시작은 여자 프로배구계였다. 이재영·이다영 자매가 중학교 시절 동기들을 때리고 흥기로 위협하는 등의 난폭한 행동을 했다는 폭로가 연이어 나왔다. 이에 그들은 사실을 인정하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되었으며 국가대표 자격 또한 박탈당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남자 프로배구에 이어 연예계로 확산 되었으며 일반 시민들도 합류하여 sns를 통하여 학창 시절에 겪었던 학교폭력을 호소하고 있다.



▲ ‘여자배구 선수 학교폭력 사태 진상규명 및 엄정대응 촉구합니다’ 청원글

불매운동으로 번지는 연예계 학교폭력

대중에게 비치는 이미지가 직업 활동과 직결되는 연예인에게에는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는 것이 치명적일 것이다. 이는 연예계 학교폭력이 불매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한 예로 연예인 학교폭력과 그룹 멤버 간 괴롭힘 논란이 광고 및 엔터업계로 영향을 미친 일이다. 논란이 된 연예인이 출연하고 있던 광고는 줄줄이 중단됐고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주가도 급락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학폭 논란 연예인이 광고 모델인 기업의 상품을 불매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4일 커뮤니티에 올라온 ‘학폭 논란 연예인 광고 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에는 “가해자들이 잘사는 꼴을 못 보겠어서 올려. 가해자 고용한 기업, 작품들 알아두자”라는 내용과 함께 학폭 의혹이 불거진 연예인의 작품과 광고 브랜드 등이 나열돼 있다. 단순히 학폭 논란이 있는 연예인이 출연한 작품과 광고 브랜드 이름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업체의 대표번호 등을 적어 다른 이들의 항의 전화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해당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한 동0식품, 무0소주, 삼0제약, 가방 브랜드 제이에000, 구두 브랜드 지0킴 등은 공식 소셜미디어에서 해당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로 바꾸거나 삭제했다. 피해자 기억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학폭 사건의 경우 법적 판단을 거쳐 진위 여부가 가려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광고 업계에서는 해당 연예인이 학폭 논란이 시인하지 않더라도 출연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 과거와 달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학폭 의혹이 불거지거나 관련자로 이름이 언급만 돼도 타격이 있기에 기업이나 방송사로서는 불매 운동과 이미지 훼손까지 감수하여 해당 연예인을 내세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 4일 커뮤니티에 올라온 ‘학폭 논란 연예인 광고 리스트’

학교폭력 처벌 지금 받을 수 있을까?

학교폭력 미투가 스포츠계, 연예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폭로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한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번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입증이 어려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과거 학폭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요청하는 청원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현행법상 학창 시절에 저지른 행위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학교폭력 공소시효의 경우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폭행죄, 모욕죄, 협박죄의 경우 5년 상해죄의 경우 7년이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난 당시 폭력 행위를 두고 지금 와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미성년자 중 형사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기준 연령을 낮추고 선고 가능한 형량을 2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하자는 등의 개정을 하려는 중이다.

학교폭력 미투는 아무리 과거에 저지른 폭력이라도 언젠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주며,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이 아주 잘못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했다. 아쉬운 것은 사회적 관심이 지나치게 처벌 중심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과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가짜 폭로를 구분하기 어려워 무분별한 마녀사냥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현장에서부터 체계적인 해결 절차를 재정비해야한다.

교육부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안’을 통해 처벌 중심에서 화해와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정책 환경 변화를 소개하였다. 학교폭력은 엄정대처하면서 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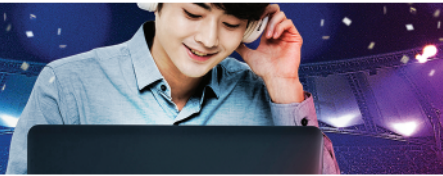


▲ 불매운동 게시글

학교폭력 논란이 시작되자 피해주장들이 예전 ‘미투’ 운동처럼 쏟아지듯 터져 나오는 건 심각한 일이다. 학폭 문제가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수가 꼭 한번은 경험했거나, 목격했을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이 학폭 미투를 통해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양희정 기획부장>

게임 광고 속 여성 성적 도구화, 도대체 언제까지?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성적 도구로 취급하는 반인권적 게임 광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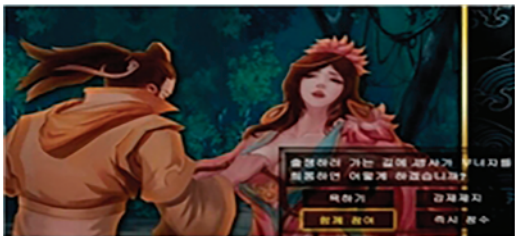


대부분은 SNS나 유튜브를 이용하면서 다양한 게임 광고를 접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 중, 여성 캐릭터를 노골적으로 성적 도구화하여 당신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거나 의아하게 만든 광고들이 있는가? 본 기사는 이런 반인권적 게임 광고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게임 광고의 선정성이 논란이 시작된 것은 2018년 즈음부터였다. 당시 가장 논란이 된 게임 광고는 국내 최초의 일부다처제 RPG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게임이었다. 이 광고에는 옷을 벗기고 체벌하는 내용과 아버지를 위해 몸을 판다는 등의 성매매 문구, 상의를 벗은 여성이 그려진 삽화에 '징벌', '총애', '장려'라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문구, 낙태약을 마시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플랫폼의 과급력과 영향력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노출되는 광고의 성차별적 내용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서울YWCA는 유튜브 광고 속 성평등·성차별 사례를 분석하는 모니터링을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결과, 성차별적 광고는 31편, 성평등적 광고는 7편을 발견했다. 이는 성차별적 광고가 성평등적 광고의 4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성차별적 광고에는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여 여성 캐릭터의 옷을 벗기는 게임이 있는가 하면 여성의 신체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이를 젓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여성이 나오는 장면, 전투 게임과는 무관하게 신체의 일부가 드러나는 의상을 착용한 여성 캐릭터의 뒷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 여성을 겁탈하는 선택지를 만든 광고



▲ 여성을 성적 도구화한 대사를 넣은 광고

'19금 모바일 게임'이라 광고하는 게임, 하지만 접속하면 13세 이상 이용 가능

더 황당한 것은 이러한 광고를 시청한 뒤 게임을 구매해 접속해보면 광고에서 내세웠던 선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다. 실제 이 게임이 15세 이상 이용 가능함을 고려할 때,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 하여 시선을 끌려는 의도이다. 즉, 광고만 선정적으로 내세워 실제 게임을 다운받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게임의 세계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광고가 게임 내용과 상관없이 성적 도구화한 여성을 내세워 광고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다. 이런 게임 광고 속 여성은 성적으로 농락당하고 무시되며 폭력적으로 대할 수 있게끔 설정돼 있어 인격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다.

반인권적 광고를 없애기 위한 발걸음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5월에 '게임 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적절한 게임 광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쪽 나열해 놓은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부분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계획 대비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플랫폼 이용자들도 반인권적 광고에 노출되었을 때 그저 광고가 끝나길 기다리거나 무시하는 소극적인 태도보다 실효성 있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며, 대형 포털 사이트들도 이러한 유해 콘텐츠를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에 대해 더욱 많이 고민하고 투자해야 한다.

그저 무관심한 태도로 시늉만 내고 피해는 국민과 소비자만 감당하는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된다. 게임 광고를 선정적으로 제시하는 것 보다, 게임의 질을 높여서 승부를 보는 것이 어떨까?
<조수빈 홍보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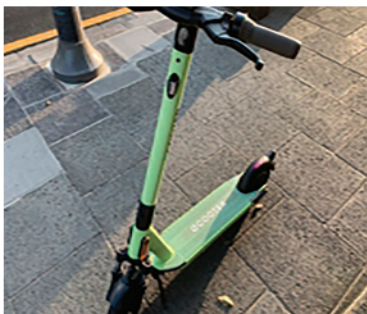
길가에 놓인 전동 킥보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에 떠오른 전동 킥보드의 공포



인도를 걷다 보면 클린 하우스 옆, 버스 정류장, 상가 등에 뜯금없이 있는 전동 킥보드에 시선이 사로잡힌 적이 있을 것이다. 도대체 이 킥보드는 누가 관리하는 것이고, 무작정 사용해도 되는 걸까?

당초 정부와 정치권은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산업 활성화 및 도심 교통 혼잡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인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공유서비스를 도입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전동 킥보드 공유나 대여 영업을 하는 업체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4곳 이상이며 대부분 어플을 깔아 가입한 뒤 사용 시간에 따라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친환경 녹색 이동수단임과 동시에 도시의 교통 혼잡까지 해소하는 전동 킥보드에 이면도 있다.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력은 시속 25km 정도로 상당히 빠르지만, 인도, 차도, 골목길 할 것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도로 주행 중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와 킥보드를 합친 일명 '키크라니'라는 은어가 생겨났다. '키크라니'는 대부분 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 2명이 한 대의 킥보드에 올라타거나, 도로를 역주행하는 운전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심지어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기 전 법률안과 에티켓에 대해 미리 숙지해야 한다.



▲ 인도에 있는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관련 법률

현재 ~ 2021년 5월 12일	2021년 5월 13일 ~
▷ 면허 소지 유무 상관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가능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없이 이용 시 무면허 운전해 해당
▷ 음주 후 이용 시 벌금 3만 원 부과	▷ 음주 운전시 면허 취소
▷ 음주 운전 측정 거부 시 벌금 10만 원 부과	▷ 잘못된 전동 킥보드 이용으로 인 해 사고 발생 시 형사처분 및 민 사적 책임이 있음
▷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	▷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전동 킥보드 이용자 에티켓

- ▷ 기기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사용 전 매뉴얼을 숙지한다.
- ▷ 사용 전 브레이크와 핸들이 잘 작동하는지, 타이어 공기압과 배터리는 적당한지 확인한다.
- ▷ 배터리 충전 또는 과충전 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 주행 중에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다.
- ▷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며, 2인 이상 탑승하지 않는다.
- ▷ 전기 제품이므로 우천 시에는 가급적 주행을 자제한다.
- ▷ 야간 주행 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사용한다.
- ▷ 방향 전환 시 조심해야 하며 급가속이나 급감속은 자제한다.

수많은 공유킥보드가 등장하고 급격하게 이용자가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분명하게 환경보호, 경제성 등의 장점과 편리성이 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관련 법률과 에티켓을 준수하여 취미를 넘어 출퇴근 등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유익하게 이용하도록 하자.
<조수빈 홍보부장, 양희정 기획부장>

당신의 첫, 반려식물 #초보식물추천 #기르기쉬워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정부가 1946년 4월 5일 제정된 국가기념일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고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환경도 생각하고 식목일도 기념하는 의미로 1석2조인 기르기 쉬운 반려 식물에는 무엇이 있을까?

공기청정기 ‘스파트필름’

스파트필름은 실내 공기 정화에 탁월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문난 식물이다. 따라서 평소 알레르기나 ‘새집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꼭 맞는 반려식물이라고 할 수 있다.

기르는 법도 쉬운데, 잎이 마를 것 같을 때마다 물을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반려식물을 처음 길러보는 초보자들도 부담 없이 쉽게 기를 수 있다. 일정 온도만 잘 유지된다면 1년 내내 꽃대가 올라와서 하얀색의 불염포를 계속 감상 할 수 있다. 이 하얀색의 길고 가느다란 꽃잎으로 유명한 스파트필름은 가격도 만원 이내로 저렴한 편에 속해 더욱 부담 없이 도전해볼 수 있다. 스파트필름을 키워본 사람들은 “왜 초보자용 반려식물인지 알겠다”, “기르기 쉬워서 좋았다.”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NASA에서도 인정하고 추천한 완벽한 공기정화 식물인 스파트필름을 키워보는 것은 어떨까?



▲ 스파트필름

수중식물 ‘마리모’

초록색의 둥글고 보슬보슬한 털뭉치를 생각나게 하는 ‘마리모’는 담수성 녹조류의 일종으로 공처럼 둥그란 모양의 해초와 비슷한 생물이다. 가느다란 섬유 하나하나가 개체로 1년에 5mm 정도씩 자라며 평균수명은 150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마리모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식물로 유명하다. 마리모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마리모를 기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자그마한 어항과 생수로 마리모의 보급자리를 준비해주고 물만 주기적으로 갈아주면 된다. 물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갈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서늘한 곳에 키워주는 것이 가장 좋다. 마리모를 키워본 사람들은 “둥글둥글 조금씩 자라나는 마리모를 보다 보면 소소하게 힐링 된다”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행운의 식물로 당신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마리모를 반려 식물로 키워보는 것은 어떨까?



▲ 마리모

길고 통통한 매력의 ‘스투키’

낮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일반적인 식물과는 다르게 스투키는 밤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는 동안 산뜻한 공기를 느끼려 침실에 스투키를 배치하는 사람들이 많다.

스투키는 초보자들도 정말 손쉽게 기를 수 있는 만큼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다. 여름이라면 겉흙이 바짝하게 말랐다고 느껴질 때 한 번씩 물을 듬뿍 주고, 겨울이라면 흙 속까지 말랐을 때 한 번씩 물을 듬뿍 주면 된다. 또한 스투키는 성장속도가 빠르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분갈이를 자주 해주지 않아도 되고 병충해에도 강하다. 그러나 과습에 취약한 편이기 때문에 다소 건조하게 키우는 것이 좋다.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지만 통풍이 잘되고 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운다면 더욱 건강하게 스투키를 기를 수 있다. 식물을 키워본 적이 없거나 재주가 없어 걱정되는 초보자라면 스투키를 키워보는 것은 어떨까?



▲ 스투키

봄나들이를 가는 것이 어려운 지금, 환경도 생각하고 식목일도 기념하여 집안에 반려식물을 들여보자. 당신의 집안에 푸른빛 봄날을 초대한다면 아마 뜻밖의 생명들도 산뜻한 공기와 함께 당신의 하루에 문을 두드릴 것이다.

<강규범 정기자>

영등할망 오섬수과? 풍요를 부르는 바람의 신 ‘영등할망’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3월이 되면 제주에는 꽃샘추위와 함께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 쌀쌀한 꽃샘추위가 시작되면 제주 사람들은 이를 보고 ‘영등할망이 왔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등할망’은 과연 누구일까? 한번 ‘영등할망’에 대해 알아보자.



▲ 영등할망

+ 영등할망이누제라?

‘영등할망’은 해산물이나 농작물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바다와 바람의 신’으로, 음력 2월 초하룻날(올해 3월 13일)이 되면 제주를 찾는다. 구름치마를 휘날리며 바람을 몰고 온 영등할망은 보름 동안 제주 섬 곳곳을 돌아다니며 풍요와 생명의 ‘씨뿌림’을 한다. 경작지에는 곡식 씨앗을, 바닷가에는 생명의 씨앗을 각각 뿌린다. 이와 같이 영등할망이 찾아오는 달을 제주에서는 ‘영등달’이라 부른다. 제주의 봄은 영등할망이 제주도의 바람을 거둬 가며 사라져야 비로소 시작된다.

+ 영등할망 완수다

예부터 제주에선 풍요를 가져다주는 영등할망을 위해 환영제와 송별제를 진행했다. 미신적인 신앙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은 영등신의 옷차림과 영등신이 누구와 함께 오는지에 따라 한해 일기와 운수를 점쳤다. 비웃을 입은 영등신이 오면 비가 많이 오고, 두터운 솜 외투를 입은 영등신이 오면 그해 영등달(음력 2월)엔 눈이 많이 오며, 차림이 허술한 영등신이 오면 날씨가 좋다고 한다. 또한 영등할망은 제주를 방문할 때 여러 식솔을 동반하는데 딸을 데리고 오면 날씨가 좋고, 며느리를 데려오면 날이 갇거나 비가 온다고 한다.

올해 3월이 화창하게 지나가길 바란다면 모든 것은 영등할망에게 달렸으니 영등할망이 옷차림을 허술하게 입고 딸과 함께 제주에 놀러 오도록 영등할망에게 소원을 빌어보자.

<성현아 문화부장>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영화! #재개봉 #재개봉 예정작 #리마스터링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관객이 현저하게 줄어들자 영화관이 그때 그 시절 명작들을 재개봉하기 시작했다. 또한 디지털 리마스터링(digital remastering) 작업을 거치게 되면서 화질과 음질이 개선되었다. 추억 속의 영화들을 깨끗하고 좋은 화질로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 적은 없어도 들어본 적은 있다는 그 영화, 3월 리마스터링 재개봉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반지의 제왕

* 절대 반지를 찾아 떠나는 모험! '반지의 제왕'

“my precious”라는 익숙한 대사를 떠올리게 하는 영화 ‘반지의 제왕’이 올해 20주년을 맞아 3월 11일에 재개봉을 한다. ‘반지의 제왕’ 판타지 영화로 막강한 힘을 가진 ‘절대반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반지의 제왕은 3부작으로 이뤄져 있으며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 순으로 진행된다. 영화 ‘반지의 제왕’은 1950년대에 집필된 소설 원작의 영화로 판타지 세계관의 축을 닦았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엘프나 오크의 전형적인 모습을 창조해낸 것이 ‘반지의 제왕’ 소설을 집필한 원작자인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난 작품이지만 부족함은 크게 찾아볼 수 없으며, 영화 또한 cg와 같은 기술이 잘 구현되어 있어 3시간이라는 긴 러닝타임에도 관객들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 태극기 휘날리며

* 전쟁의 참혹함을 담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대한민국 역대 두 번째 1,000만 관객 흥행작인 ‘태극기 휘날리며’가 3월 17일에 재개봉을 한다. 영화관에서는 17년 만에 상영되는 것으로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태극기 휘날리며’는 6.25 전쟁을 배경으로 두 형제의 비극적인 운명과 전쟁에 희생당하는 가족사를 담은 영화이다. 2004년 개봉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을 모두 울렸던 만큼 전쟁의 참혹함과 비극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완성도 또한 높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전쟁 영화 중에선 빼놓을 수가 없는 작품으로 언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울 수 없는 상처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만큼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며 대한민국의 슬픈 기억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



▲ 중경삼림

* 레트로 감성을 일으키는 영화 '중경삼림'

“내 사랑의 유통기한은 만 년으로 하고 싶다.”는 달콤한 말을 남긴 영화 ‘중경삼림’이 3월 4일에 재개봉을 한다. 이 영화는 90년대의 홍콩 감성을 잘 담아낸 작품으로 국내 개봉 당시 어마어마한 신드롬과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영화는 옴니버스 방식으로 두 개의 사랑에 관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옛 애인을 기다리는 남자와 마약밀매상인 여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두 번째 에피소드는 애인이 남긴 이별 편지를 외면하려는 남자와 그 남자를 짝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두 가지 에피소드 모두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독특하고 재밌게 풀어내고 있으며 영상에 걸맞은 OST(Original SoundTrack)는 관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다. 영화 ‘중경삼림’을 보게 된다면 이제는 볼 수 없는 그 시절 자유로운 홍콩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가로운 휴일, 조금은 여유를 갖게 되고 마음이 차분해져 올 때 재개봉 영화들을 감상해보는 것은 어떨까? 재개봉 영화들을 보게 된다면 누군가는 추억에 잠기게 되고 누군가는 겪어보지 못했던 감성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성현아 문화부장>

야호~ 최고의 만우절 사연 선발대회 한라춘추에서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이벤트 진행합니다.

만우절은 가벼운 장난이나 그럴듯한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헛걸음을 시키기도 하는 날이다. 서양에서 유래한 풍습으로 시초에 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프랑스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일반적이다. 옛날의 신년은 현행 달력으로 3월 25일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날부터 4월 1일까지 춘분제가 행해졌고, 마지막 날에는 선물을 교환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런데 1564년 프랑스의 샤를 9세가 새로운 역법을 채택하여 새해의 첫날을 1월 1일로 고쳤으나 그것이 말단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때문에 사람들은 4월 1일을 신년제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그날 선물을 교환하거나 신년 잔치 흥내를 장난스럽게 내기도 했는데, 이것이 만우절의 시초가 되어 유럽 각국으로 퍼진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만우절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벼운 장난이나 농담으로 웃음을 주는 날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과한 장난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그쳐야 한다.

우리도 학창 시절 친구들과 함께 웃을 뒤집어 있는 다던가, 다른 반과 자리를 바꿔 앉는 등의 장난을 해왔다. 이외에도 한라 학우들의 만우절의 즐거운 추억이 있다면 모두에게 공유해보자.



< 만우절 이벤트 >

만우절날 경험하거나 들었던 기발한 혹은 기억에 남는 장난, 일화 등을 적어주세요.

❖ 접수기간 : 3 / 24(수) ~ 4 / 4(일)

❖ 당첨발표 : 4 / 7(수)

❖ 작성방법 : 구글폼 작성 + 한라춘추 인스타 팔로우

✓ 당첨된 사연은 4월호 기사에 올라갑니다!

+ 사연이 당첨되신 분들에게 공차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한라춘추 신문사 만우절 이벤트 포스터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꼭 한라춘추 신문사 인스타 팔로우가 필요하며, 사연을 읽어본 후 겹치지 않는 주제로 뽑아 기사에 실을 예정입니다. 구글폼 링크는 한라춘추 신문사 인스타에 기재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 : 2021chu_newspaper

<김소현 편집국장>